

가족가치관 변화의 연령-기간-세대 효과¹⁾

- 부모의 기대충족과 전통적 성역할관을 중심으로 -

Age-Period-Cohort Effects of Family Values:
Focusing on Meeting Parents' Expectations and Traditional Gender Roles

정 선 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기간, 세대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가치관 조사를 분석하였다. 가족가치관을 측정하는 문항 중 기간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2018년까지 측정된 두 문항 - 부모의 기대충족, 전통적 성역할관-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각 개인은 기간과 세대라는 두 가지 집단에 동시에 소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 교차분류임의효과 모형(HAPC-CCREM)을 적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기대충족 동의수준은 2010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낮아지고 있으며, 전통적 성역할관 동의수준은 2010년 급격히 낮아진 후 2018년 현재 약간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다른 요인을 통제한 HAPC-CCREM 분석 결과, 기간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기대충족 동의수준의 경우 다른 기간에 비해 1996년이 유의하게 낮았고, 전통적 성역할관의 경우 1996년, 2001년, 2005년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에 2010년, 2018년은 유의하게 낮았음을 보여준다. 둘째, 부모의 기대충족 동의수준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며, 전통적 성역할관은 연령이 높을수록 동의수준이 높았다. HAPC-CCREM 분석 결과는 이러한 연령효과는 부모 기대충족 동의수준의 경우 한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전통적 성역할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셋째, 두 가치관 모두 세대별로 보이는 변화의 양상은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않으며, 이는 HAPC-CCREM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가족가치관, 세계가치관조사, 연령-기간-세대 효과, 연령-기간-코호트 교차분류임의효과 모형

1) 본 연구는 2020년 인천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음.

목 차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V. 분석결과
II. 선행연구	V. 논의 및 결론
III. 연구방법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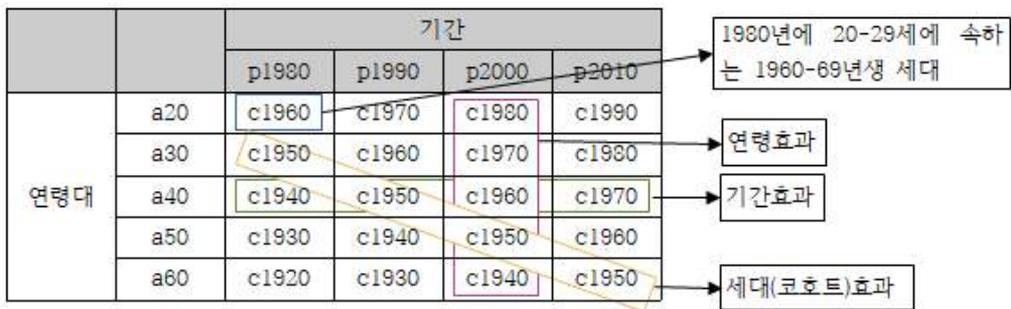
사회의 변화는 가족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1997년 IMF,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경제적 침체기에는 조혼인율은 낮아지고 조이혼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유계숙, 강민지, 윤지은, 2018). 이러한 한국사회의 역동적인 특성으로 인해 한국은 가치관의 변화가 빠르고 가치관의 세대차 역시 큰 국가로 꼽히고 있다(Inglehart & Welzel, 2005). 그러나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정치적인 쟁점이나 경제문제 등과 비교할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은기수, 2006) 가족의 삶의 방식의 변화가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최유정, 최셋별, 이명진, 2011).

가족가치관은 가족이나 가족을 포함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포괄적 태도나 관점을 조직화한 관념 체계(유계숙 외, 2018)로, 가족은 교육, 보건, 복지 와 같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상호작용하는 기초적인 사회제도라는 점에서 가족가치관은 사회의 각 영역에 대한 가치관 및 인식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가치관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문제에 대한 각 세대의 인식과 대처 방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은석, 안승재, 함선유, 홍백의, 2018).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비율이 달라지면서 발생하기도 하고 특정 기간의 사회현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전자를 '세대효과(cohort effect)', 후자를 '기간효과(period effect)'라고 한다. 사회의 변화는 세대의 교체에 의해 발생한다는 '세대 교체 이론(cohort replacement theory)'(Alwin & McCammon, 2003)은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세대효과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보는 토대를 제공한다(예: 은석 외, 2018; 이정희, 2014; Lee, 2019). 각 세대는 주요 발달기에 경험한 사회적·역사적 사건에 의해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며(Jurkiewicz & Brown, 1998), 이로 인해 한 세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기대, 동기는 다른 세대와 차이를 보이게 된다(Cogin, 2012). 예를 들어, 1950년대에 출생한 세대는 산업화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을 체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교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는 세대이며, 1960년대에 출생한 세대는 상대적으로 부유해진 사회와 대학교육을 경험한 첫 세대로 이전 세대에 비해 진보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Lee, 2019). 한편, 사회구성원의 변화로 설명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기간효과라고 하는데 앞서 예로 든 1997년 IMF,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금융위기는 가족해체라는 현상을 통해 모든 세대의 가족가치관에 유사한 영향력을 미친다.

기간효과와 세대효과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는데, 예를 들어, 유계숙 외(2018)의 연구는 2001년의 20대와 2017년의 20대가 가족가치관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차이가 2001년과 2017년의 기간효과에 의한 것인지 2001년의 20대와 2017년의 20대라는 세대효과에 의한 것인지는 연구설계상 구분이 어렵다. 또한, 가족가치관을 분석한 다수의 연구들은 나이가 들면서 보수화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연령효과(age effect)'를 다루고 있는데,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 따라 세대효과와 연령효과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가령, 횡단자료를 분석한 김영순과 노정호(2017)의 연구는 전쟁·산업화 세대, 민주화 세대, 정보화 세대는 복지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이 차이가 세대효과에 의한 것인지 각 세대의 평균연령 차이에서 비롯된 연령효과에 의한 것인지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령효과, 기간효과, 세대효과는 개념적으로는 명확히 구별되지만 앞서 소개된 연구에서와 같이 경험적으로 이 효과들을 구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허석재, 2017).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 세 가지 요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연령, 기간, 세대를 위계적 자료구조로 간주하는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 교차분류임의효과 모형(Hierarchical Age-Period-Cohort Cross-Classified Random Effect Model [HAPC-CCREM])을 적용하였다(Yang & Land, 2013). 아래의 [그림 1]에서 a는 연령, p는 기간, c는 코호트(세대)를 의미한다. 행을 따라 우측으로 이동하는 방향이 기간효과, 기간을 고정하고 열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연령효과,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연결되는 대각선 방향이 세대효과를 보여준다. 기간과 상관없이 연령대별 패턴이 일관되게 나타나면 연령효과가 있는 것이고, 대각선 방향의 효과가 유지된다면 세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허석재, 2015).



[그림 1] 연령-기간-세대 효과

출처: 허석재(2015); Yang & Land(2013)의 p.10, Table 2.1을 재구성한 것임

위와 같이 반복횡단면(repeated or rolling cross-sectional) 자료를 결합하여 코호트 표를 작성하면 기술분석을 통해 표면적인 패턴을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변인을 투입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Yang과 Land(2013)는 연령, 기간, 세대를 위계

적 자료구조로 간주하는 다층모형(multi-level) 접근을 제안하였다. 연령은 개인 수준(level-1), 기간과 세대는 집단 수준(level-2)에 해당되며 각 개인은 기간과 세대라는 두 가지 집단에 동시에 소속된다. 이 때 위의 [그림 1]에서 c1960은 p1980에도 속하지만 p1990에도 속하는 것과 같이 두 개의 상위집단이 서로 교차하게 되는데, 이를 교차분류 되었다고 한다(Raudenbush & Bryk 2002, 허석재, 2017에서 재인용). 자료의 위계성을 가정하여 연령-기간-세대(Age-Period-Cohort(APC)) 분석을 하며, 집단 수준에서 나타나는 임의효과(random effect)를 통해서 세대와 기간효과를 추정하기 때문에 이 모형을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 교차분류임의효과 모형(HAPC-CCREM)이라고 한다(Yang & Land, 2013).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측정한 자료로 1981년도부터 수집되어 2020년 현재 7차년도 자료까지 공개되어 있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WVS])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국내에서 매년 수집되고 있는 '사회조사'의 경우, 격년마다 '가족' 영역이 조사되고 있으나 가족가치관 문항이 조사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도로 WVS에서 다루는 가족가치관 관련 문항에 비해 조사기간이 짧은 편이다¹⁾. 일반적으로 가족가치관의 하위 영역에는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양성평등적 역할관, 가족주의 등이 포함되는데(유계숙 외, 2018; 은석 외, 2018; 이정희, 2014), 본 연구는 기간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근까지 5개년도 이상 자료가 수집된 가족가치관 관련 문항인 '내 인생의 목표 중 하나는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3차-7차)'와 '주부의 역할은 직장관과 동일한 만족감을 준다(2차-7차)'라는 문항을 선정하였다²⁾.

'주부의 역할은 직장관과 동일한 만족감을 준다'는 문항은 사회를 공적 영역과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구분하고 여성은 가사노동의 전담자이자 재산산자로, 남성은 사회적 노동의 전담자이자 생산자로 규정한 성별분업 논리(류연규, Ha, 2017; 원숙연, 김예슬, 2017)에 대한 동의수준을 측정한다. 또한, 이 문항은 '국제사회인식조사'와 '한국종합사회조사'를 분석한 김영미와 류연규(2013)의 연구에서 성역할태도를 측정한 문항(예: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유급노동을 하는 것만큼 만족스러운 일이다')과 유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 문항을 '전통적 성역할관'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다. '사회조사'를 이용한 이정희(2014)의 연구는 1970년대 이후 출생 코호트가 다른 출생코호트에 비해 일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며 남성의 일을 여성의 일보다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을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패널'을 분석한 이정운과 김주현(2020)은 한국 기혼 여성들의 성역할태도는 출생 코호트와 상관없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진보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어, 전통적 성역할관의 변화에 있어 세대, 연령, 기간의 효과를 분리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
- 1) '사회조사'는 2년마다 조사되고 있어 기간효과를 살펴보기에 상당한 장점이 있으며 WVS와 중복되는 문항도 없어 추후에 사회조사의 가족가치관 관련 문항에 대한 추가 분석을 통해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4개년도 이상 수집된 가족가치관 관련 문항으로는 '자녀가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집안에 부모가 다 있어야 한다(1차-5차)', '여성의 인생을 위해 자녀가 반드시 필요하다(1차-4차)', '결혼은 낡은 제도이다(2차-5차)'와 같은 문항이 있다.

한편, 위의 문항과 달리 '내 인생의 목표 중 하나는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라는 문항은 측정하고 있는 가족가치관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다. 이 문항은 유교적 가족관계의 핵심요소인 '효'의 수용 정도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는데, 부모님 돌보기, 부모님 존중, 부모님께 재정보조하기, 부모님 말씀 경청하기, 부모님 행복하게 만들기, 부모님과 자주 접촉하기로 효의식을 측정 한 Gallois와 동료들(1996)의 견해에 따르면 '부모님 행복하게 만들기'에 해당하는 문항이라 할 수 있다. 성규탁(1994)은 '행동지향적 효', '정서지향적 효', '가족지향적 효'로 효의 의미와 실천을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였는데 이 중 가족지향적 효는 가족의 영속을 도모하고 가족의 체면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내 인생의 목표 중 하나는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 문항을 효의식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부모님 행복하게 만들기'와 가족의 영속과 체면을 도모하는 '가족지향적 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부모의 기대충족'으로 명명하여 분석하였다. 자녀가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IMF 세대(1972-1982년생)의 동의수준이 다른 세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밝힌 은석 외(2018)의 연구는 일부 효의식의 변화에 세대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외환위기로 인해 부모 세대의 실패를 초기 성인기에 경험한 IMF 세대의 세대효과로 볼 수도 있지만, 2015년 자료수집 당시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최고수준에 이르지 않았거나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기 시작하는 연령에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령효과에서 기인한 결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가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세대, 기간, 연령 효과 중 일부 효과에 집중하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다른 효과들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어떠한 효과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고찰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기존의 가치관 변화 연구는 세대론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세대간 갈등을 필연적으로 보기 때문에 해결방안의 모색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본 연구와 동일한 위계적 APC 모형으로 WVS 자료를 분석하여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차이의 세대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밝힌 허석재(2017)의 연구와 개인이 인식하고 있는 가족과 관련한 정체성은 연령대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는 최유정 외(2011)의 연구는 가족가치관의 차이를 세대효과와 렌즈로 바라보는 시각을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1998년부터 2014년까지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본 연구와 유사한 연령-기간-세대-탈경향(Age-Period-Cohort-Detrended(APCD)) 모형으로 분석한 Lee(2019)의 연구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출생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음을 밝혀 가족가치관의 차이에서 세대효과가 갖는 의미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가족은 다른 사회제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관을 가졌으리라 예상되는 세대들이 가장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는 장(場)이라는 점에서(박경숙, 서이종, 김수종, 2013) 가족을 구성하는 개인들의 가족가치관을 살펴보는 것은 가족을 비롯한 사회제도의 갈등과 문제를 살펴보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토대로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가족가치관은 연령, 기간, 세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2. 가족가치관 변화의 연령효과, 기간효과, 세대효과는 어떠한가?

II. 선행연구

1. 가족가치관의 개념과 구성요소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대부분의 사회구성원은 가족 안에서 태어나 사회화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사회구성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송다영, 2005). 또한, 가족은 교육, 보건, 복지와 같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상호작용하는 기초적인 사회 제도라는 점에서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은 사회의 각 영역에 대한 가치관 및 인식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은석 외, 2018).

가족가치관이란 가족이나 가족을 포함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포괄적 태도나 관점을 조직화한 관념체계(유계숙 외, 2018)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예를 들어, 1991년부터 2008년까지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족가치관 및 가족관계만족도를 분석한 정기선과 김혜영(2013)은 가족가치관과 가족의 형태가 과거에 비해 유연해지고 있으며,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개인들은 결혼관계를 회피하거나 해체함으로써 가족형태 및 구성에 변화가 발생하는 한편 가족관계의 질을 중시하는 가족문화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가족가치관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더라도 그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세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여성의 일에 대한 인식과 직업의식을 살펴본 연구(이정희, 2014)는 출생 코호트에 따라 이러한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코호트는 다른 출생코호트에 비해 일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남성의 일을 여성의 일보다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가치관은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족가치관을 구성하는 하위영역의 구성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가족가치관에는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 및 효의식, 양성평등적 역할관, 가족주의 등과 같은 하위영역이 포함된다(유계숙 외, 2018; 은석 외, 2018; 이정희, 2014).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계가치관조사(WVS)는 다양한 가족가치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연령 및 세대효과와 함께 기간효과를 보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에 기초하여 5개년도 이상 수집된 자료로 '내 인생의 목표 중 하나는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와 '주부의 역할은 직장과 동일한 만족감을 준다'라는 문항을 선정하였으며, 각각 '부모의 기대충족'과 '전통적 성역할관'으로 명명하였다.

2. 가족가치관 변화와 연령-기간-세대효과

가족가치관이나 이와 관련 있는 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 중에서 연령, 기간, 세대효과를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드물다. 그러므로 가족 및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기간, 세대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연령효과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는 횡단자료의 분석을 통해 연령효과를 살펴보고 있지만 최근에는 패널자료를 이용한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가령, 결혼에 대한 실리적 태도(예: 결혼은 경제적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제도로서의 결혼(예: 결혼을 하면 자녀는 꼭 낳아야 한다),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예: 오늘날 결혼과 동거는 사회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다), 결혼 관련 성평등 의식(예: 명절에는 시댁에 먼저 가야 한다), 부모되기 태도(예: 자식을 가지는 것은 나의 노후 보장에 도움이 된다) 등을 조사한 연구(이수연, 김인순, 김현정, 김민정, 2017)는 각 태도의 연령대별 차이(예: 50대)와 세대별 차이(예: 1964-1978년생)를 분석하고 있는데, 횡단연구라는 점에서 사실상 연령효과를 살펴본 연구라 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이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을 주는 것으로 여기고 결혼제도를 옹호하는 태도도 높았으며, 부모 되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녀에게 많이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거를 결혼의 대안으로 여기는 태도에서는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정윤과 김주현(2020)은 성역할태도를 '남성생계부양자 이데올로기'와 '모성 이데올로기'로 나누어 한국 기혼 여성들의 성역할태도를 분석하였다. 연령, 기간, 세대효과는 여성가족패널 1-7차 년도의 기술분석을 통해 확인하고 각 세대별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 연령을 투입하는 방식을 통해 연령효과를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이들의 연구는 각 세대 분석모형에서 연령이 높아지면서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2)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기간효과

기간효과는 패널자료나 반복횡단면 자료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같은 표본을 반복 조사하는 패널자료는 시간이 흐를수록 패널조사에 참여하는 표본이 줄어들어 대표성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허석재, 2015) 기간효과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는 매번 표본을 새롭게 구성하는 반복횡단면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가족가치관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1991년부터 2008년까지 통계청의 사회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가족생활의 만족도를 분석한 정기선과 김혜영(2013)의 연구는 반복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된다. 이 연구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생활 전반, 부부 및 부모-자녀관계, 형제자매 및 배우자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주며,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성별과 결혼지위뿐만 아니라 연령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된 연령효과와 독립적으로 기간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2001년과 2017년의 20대를 비교분석한 유계숙 외(2018)의 연구는 2017년 청년들이 2001년 청년들에 비하여 전통적 성역할과 같은 가족주의 이념에 거부적이며 부계혈연중심 초혼핵가족에 편향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도 약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가 2001년에 비해 좀 더 다원적이고 개인주의적인 2017년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1980년대 초반 출생집단과 1990년대 후반 출생집단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연구설계상 쉽지 않다.

3) 가족가치관의 변화와 세대효과

세대는 특정 기간의 출생연도와 주요 발달기에 경험한 사회적·역사적 사건에 의해 형성된 세계관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세대에 대한 연구는 한 사회의 변동 구조를 이해하는 지침을 제공한다(Mannheim, 1952). Mannheim(1952)은 주요 발달기로 17세에서 25세 사이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 시기에 학교, 군대, 직장 등의 단체생활을 통해 사회적 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Schuman과 Scott(1989)의 실증적 연구도 동일 세대에 속한 개인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에 형성된 고유의 집합기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겪었더라도 어떠한 발달단계에 그 사건을 겪었는지가 세대별 집합기억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 세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기대, 동기는 다른 세대와 차이를 보이게 된다(Cogin, 2012).

세대 연구에서는 각 세대가 주요 발달기에 경험한 사회적·역사적 사건에 의해 다른 세대와 구별되는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고(Jurkiewicz & Brown, 1998) 이러한 가치관과 태도가 장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어수영, 2004) 세대 간 경계 설정이 중요하다(Cennamo & Gardner, 2008). 연구자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는 방식에 차이를 보이는데, 국내 연구에서 오대혁 외(2011)은 약 10년 주기로 세대를 구분하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베이비부머세대(1955-1964년생)와 X세대(1965-1976년생)로 구분하였다. 또한, 허석재(2017)는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IMF 외환위기의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출생연도가 1950년 이전인 집단을 전쟁 세대, 1951-1960년까지를 산업화 세대, 1961-1970년을 민주화 세대, 1971-1980년은 X세대, 1981년 이후 출생 코호트는 IMF 세대로 구분하였다.

한편, 은석 외(2018)는 10년 단위로 세대를 구분하지 않고 '결정적 집단 경험'을 이용하여 세대를 구분하였는데, 일제 식민지 경험, 한국전쟁 경험, 산업화와 정보화 경험, 민주화운동과 국내외 정치 상황 경험의 네 가지 요인과 선행연구들(예: 노환희, 송정민, 강원택, 2013; 박재홍, 2017; 어수영, 2006)을 반영하여 1957년생부터 1961년생까지를 유신 세대, 1962년생부터 1971년생까지를 386 세대, 1972년생부터 1982년생까지를 IMF 세대, 1983년생부터 88만원 세대로 구분한 바 있다.

가족가치관 변화의 세대효과를 다룬 연구로 은석 외(2018)의 연구가 있지만 횡단연구를 통해 수집된 연구대상을 연령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연령효과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연구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노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 IMF 세대(1972-1982년생)의 동의수준이 다른 세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외환위기로 인해 부모 세대의 실패를 초기 청년기에 경험한 이 세대의 특성으로 세대효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5년 자료수집 당시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최고수준에 이르지 않았거나 명예퇴직 등으로 일 자리를 잃기 시작하는 연령에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령효과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이정희(2014)는 세대를 5년 단위로 구분하였는데,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코호트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M자형 곡선도 완만해지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조사와 세계가치관조사(WVS)를 분석한 결과는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코호트가 다른 출생코호트에 비해 일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남성의 일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연령, 기간, 세대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로 Lee(201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1998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조사의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문항의 응답 변화를 APCD 모형을 통해 분석한 연구결과는 연령, 기간, 세대의 선형 경향 효과(linear trend effects)를 통제하였을 때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출생한 세대는 위의 문항에 동의하는 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경향성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세계가치관조사(WVS)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WVS는 1차년도(1981년)에 10개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차년도부터 조사에 참여하고 있다. 7차년도(2018년)에는 80개국에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2020년 현재 7차년도 자료까지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 WVS는 국가별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표하는 1,200명 이상을 층화표집하여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³⁾. 최근 5개년도 이상 측정된 '내 인생의 목표 중 하나는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3차-7차)'와 '주부의 역할은 직장과 동일한 만족감을 준다(2차-7차)'에 대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여 APC 효과를 분석할 때 투입되는 변인(예: 성별, 주관적 소득수준, 결혼지위, 교육수준)에 결측치가 없는 응답자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내 인생의 목표 중 하나는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는 6,009명, '주부의 역할은 직장과 동일한 만족감을 준다'는 7,213명이 최종 분석 대상이었다.

3) 지역, 인구 조사 단위, 선거 구역 등을 기반으로 1차 표본조사단위(primary sampling unit(PSU))가 무작위로 추출되며 각 PSU에서 10명이 넘지 않는 응답자를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국가의 대학 연구자를 연구책임자로 지정한 후 조사기관(예: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이 공통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면대면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2. 연구변인

1) 종속변인: 부모의 기대충족, 전통적 성역할관

부모의 기대충족을 보여주는 '내 인생의 목표 중 하나는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 문항은 3차년도(1996년)부터 7차년도(2018년)까지 5개년도에 걸쳐 수집되었다. '1: 정말 그렇다' 부터 '4: 전혀 그렇지 않다' 중 응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기대충족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전통적 성역할관을 보여주는 '주부의 역할은 직장과 동일한 만족감을 준다' 문항은 2차년도(1990년)부터 7차년도(2018년)까지 6개년도에 걸쳐 수집되었다. '1: 전적 찬성'부터 '4: 전적 반대' 중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역코딩된 점수는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관 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2) 독립변인: 연령, 기간, 세대

기간은 측정된 연도를 의미하며, 연령은 측정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서 산출하였다. 연속변인인 연령이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선형적이지 않을 수 있어 연령과 함께 연령의 제곱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기간과 연령과 달리, 세대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된다. 본 연구는 10년 단위로 세대를 구분한 허석재(2017)의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1950년 이전 출생한 코호트를 '전쟁세대', 1951년부터 1960년 이전 출생한 코호트를 '산업화세대', 1961년부터 1970년 이전 출생한 코호트를 '민주화세대', 1971년부터 1980년 이전 출생한 코호트를 'X세대', 1981년 이후 출생한 코호트를 'IMF세대'로 명명하였다.

3) 통제변인

본 연구는 통제변인으로 성별, 주관적 소득수준, 결혼지위, 교육수준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노부모 부양책임과 같은 가족가치관에서 큰 차이를 설명하는 변인이며(은석 외, 2018),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도구적 가족주의⁴⁾ 가치관 수준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광영, 문수연, 2014). WVS는 가구의 주관적 소득수준을 가장 낮은 1점부터 가장 높은 10점까지 10단계 수준에서 응답하도록 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소득수준을 연속변인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결혼지위는 가족가치관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교육은 사회적으로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의 형성과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ckman & Muha, 1984; Phelan, Link, Stueve, & Moore, 1995). 결혼지위는 결혼했음, 동거, 사별, 이혼, 미혼의 다섯 범주로 측정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결혼했음'을 '1'로 하는 더미 변인을 제작하였다. 교육수준의

4) 가족만이 유일한 사회적 안전망인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가족에게 의지하는 '도구적'인 특성이 부각된 가족주의. 가족구성원이 사회와 학교에서 경쟁할 때 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전략하여 부동산투기, 부정입학 등 반공동체 이기주의를 야기하고 있음(신용하, 장경섭, 1996).

경우,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1'로 하는 더미 변수를 작성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3. 분석방법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기간, 세대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순서를 따랐다. 우선, WVS 자료 중 한국 자료를 2차년도부터 7차년도까지 결합한 후, 결합한 WVS 자료로 위의 [그림 1]과 같은 코호트 표를 작성하고 그래프를 통해 패턴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기간, 세대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HAPC-CCREM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인수준의 다른 회귀계수들은 고정효과만 있다고 가정하고 절편에 대해서만 집단 수준에서 무선효과가 있다고 가정한 무선헌편모형(random intercept model)의 수식은 다음과 같다(허석재, 2017).

$$y_{ijk} = (\gamma_0 + u_{0j} + v_{0k}) + \beta_1 \text{연령}_{ijk} + \beta_2 \text{연령}_{ijk}^2 + \beta_3 \text{성별}_{ijk} + \beta_4 \text{주관적소득수준}_{ijk} + \beta_5 \text{교육수준}_{ijk} + \beta_6 \text{결혼지위}_{ijk} + e_{ijk}$$

..... 식(1)

개인의 절편에 해당하는 $(\gamma_0 + u_{0j} + v_{0k})$ 에서 γ_0 는 전체 모집단 절편, u_{0j} 는 전체 모집단 절편으로부터의 기간의 편차, v_{0k} 는 전체 모집단 절편으로부터의 코호트의 편차를 의미한다. 코호트효과와 기간효과가 있다면 각각의 코호트와 기간에서 $(\gamma_0 + u_{0j} + v_{0k})$ 의 값은 다르게 산출될 것이다(허석재, 2017). 모든 분석은 Stata 15.0 S/E를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연령, 세대, 성별, 주관적 소득수준, 결혼지위, 교육수준을 WVS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고령화로 인하여 61세 이상 인구집단의 표집 규모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IMF세대가 4차년도 이후부터 표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기간					
	2차년도 (n=1,185)	3차년도 (n=1,228)	4차년도 (n=1,171)	5차년도 (n=1,198)	6차년도 (n=1,186)	7차년도 (n=1,245)
	명(%) 혹은 M(SD)					
연령						
25세 이하	215 (18.14)	230 (18.73)	194 (16.57)	193 (16.11)	178 (15.01)	151 (12.13)
26-30세 이하	192 (16.20)	193 (15.72)	149 (12.72)	122 (10.18)	112 (9.44)	117 (9.40)
31-35세 이하	197 (16.62)	170 (13.84)	157 (13.41)	185 (15.44)	129 (10.88)	84 (6.75)
36-40세 이하	151 (12.74)	150 (12.21)	141 (12.04)	107 (8.93)	125 (10.54)	125 (10.04)
41-45세 이하	106 (8.95)	121 (9.85)	146 (12.47)	156 (13.02)	132 (11.13)	110 (8.84)
46-50세 이하	115 (9.70)	126 (10.26)	161 (13.75)	117 (9.77)	132 (11.13)	155 (12.45)
51-55세 이하	86 (7.26)	111 (9.04)	106 (9.05)	86 (7.18)	110 (9.27)	113 (9.08)
56-60세 이하	51 (4.30)	64 (5.21)	60 (5.12)	59 (4.92)	80 (6.75)	152 (12.21)
61세 이상	72 (6.08)	63 (5.13)	57 (4.87)	173 (14.44)	188 (15.85)	238 (19.12)
세대						
전쟁 세대	437 (36.88)	367 (29.89)	229 (19.56)	247 (20.62)	218 (18.38)	80 (6.43)
산업화 세대	349 (29.45)	272 (22.15)	298 (25.45)	219 (18.28)	187 (15.77)	280 (22.49)
민주화 세대	368 (31.05)	358 (29.15)	304 (25.96)	267 (22.29)	268 (22.60)	273 (21.93)
X 세대	31 (2.62)	231 (18.81)	307 (26.22)	297 (24.79)	267 (22.51)	242 (19.44)
IMF 세대	-	-	33 (2.82)	168 (14.02)	246 (20.74)	370 (29.72)
성별						
여성	640 (54.01)	624 (50.81)	584 (49.87)	600 (50.08)	601 (50.67)	638 (51.24)
남성	545 (45.99)	604 (49.19)	587 (50.13)	598 (49.92)	585 (49.33)	607 (48.76)
주관적소득 수준 (1-10)	3.69 (2.67)	5.69 (2.13)	4.80 (1.81)	4.88 (1.77)	5.02 (1.80)	4.84 (1.38)
결혼지위						
결혼했음	783 (66.08)	819 (66.69)	806 (68.83)	771 (64.36)	742 (62.56)	898 (72.13)
그 외	402 (33.92)	409 (33.31)	365 (31.17)	427 (35.64)	444 (37.44)	347 (27.87)
교육수준						
대학졸업이상	74 (6.24)	313 (25.49)	336 (28.69)	462 (38.56)	522 (44.01)	396 (31.81)
그 외	1,111(93.76)	915 (74.51)	835 (71.31)	736 (61.44)	664 (55.99)	849 (68.19)

2. 가족가치관의 변화

아래의 〈표 2〉와 〈표 3〉은 각각 부모의 기대충족 동의수준과 전통적 성역할관의 평균값을 연령별, 기간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열을 따라 위아래로 나타나는 경향성은 연령효과를 의미하고, 행을 따라 좌우로 나타나는 경향성은 기간효과를 보여준다. 대각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코호트의 변화를 보여주는 세대효과를 의미한다. 〈표 2〉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의 기대충족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효의식 수준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세대별 차이를 기간별,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전쟁세

대,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의 가족주의적 가치관은 M자 형태를 보이며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반면에, X세대와 IMF세대는 한 번의 상승을 경험했을 뿐이다. 세대별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쟁세대와 산업화세대는 30-40대에 부모의 기대충족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지점이 나타난 반면에, 민주화세대와 X세대는 이 연령대에 가치관의 감소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IMF세대는 현재 40세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30대에 급격하게 감소한 가치관이 이후에 유지될지 혹은 반동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표 2〉 부모의 기대충족 동의수준의 평균

구분	3차년도 1996년	4차년도 2001년	5차년도 2005년	6차년도 2010년	7차년도 2018년
25세 이하	2.79	2.90	3.12	3.24	3.05
26-30세 이하	2.78	2.79	2.95	3.08	3.15
31-35세 이하	2.69	2.86	2.97	3.01	2.95
36-40세 이하	2.62	2.88	2.83	3.00	3.04
41-45세 이하	2.67	2.98	2.93	3.09	3.01
46-50세 이하	2.56	2.96	2.83	3.02	2.94
51-55세 이하	2.65	3.11	2.85	3.04	2.93
56-60세 이하	2.63	3.13	2.95	3.09	2.98
61세 이상	2.57	3.30	2.98	3.10	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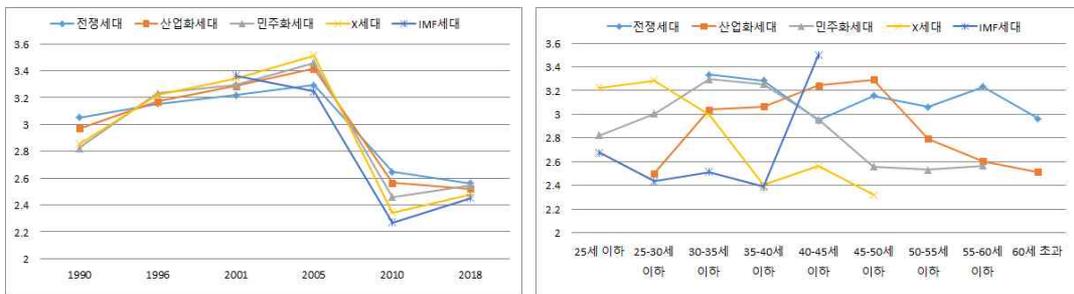
〔그림 2〕 부모의 기대충족 동의수준의 세대효과

전통적 성역할관은 중간 시점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며, 연령이 높은 집단이 이 가치관에 더 많이 동의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세대별 차이를 기간별,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림 3)과 같다. 모든 세대가 2010년에 전통적 성역할관 수준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며 IMF세대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대별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전쟁세대

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통적 성역할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화세대, 민주화세대, X세대는 30대 이후 가치관 동의수준의 하락을 경험한다. 하락하는 시기에 차이가 발견되는데, 산업화세대는 50세 이후에, 민주화세대는 35세 이후에, X세대는 25세 이후로 하락의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을 2010년에 급격히 낮아지는 가치관의 변화와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IMF세대의 경우, 35세까지 가장 낮은 수준의 전통적 성역할관을 보이고 있는데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수집되어 있지 않아 증가 추세가 유지될지 혹은 급격한 감소를 보일지 예측할 수 없다.

〈표 3〉 전통적 성역할관의 평균

구분	2차년도 1990년	3차년도 1996년	4차년도 2001년	5차년도 2005년	6차년도 2010년	7차년도 2018년
25세 이하	2.81	3.21	3.30	3.28	2.24	2.40
26-30세 이하	2.80	3.19	3.42	3.51	2.27	2.49
31-35세 이하	3.03	3.32	3.27	3.48	2.39	2.51
36-40세 이하	2.95	3.17	3.32	3.50	2.34	2.42
41-45세 이하	2.93	3.17	3.26	3.49	2.44	2.56
46-50세 이하	3.13	3.17	3.30	3.44	2.56	2.52
51-55세 이하	2.90	3.21	3.03	3.29	2.46	2.53
56-60세 이하	3.27	3.08	3.43	3.50	2.70	2.54
61세 이상	3.15	3.05	3.35	3.24	2.66	2.53



[그림 3] 전통적 성역할관의 세대효과

3. 가족가치관 변화의 연령-기간-세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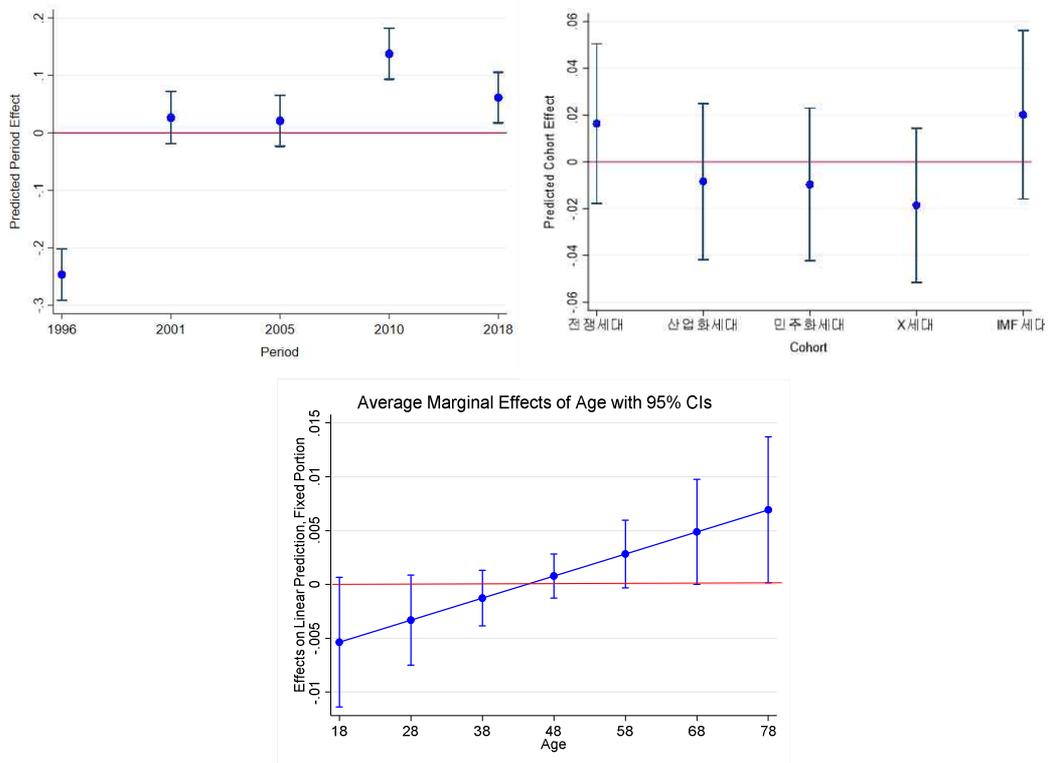
다음은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 교차분류임의효과 모형(HAPC-CCREM) 분석 결과이다. 고정 효과 부분을 보면, 부모의 기대충족 동의수준에서는 연령 효과가 유의하지만 전통적 성역할관의 경우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기대충족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고 (B=.10; p<.00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B=.02; p<.01) 동의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 성역할관은 결혼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고(B=.07; p<.01) 소득수준이 높을수록(B=.02; p<.001) 동의수준도 높았다. 코호트의 분산은 0에 가까워 코호트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부모의 기대충족 동의수준과 전통적 성역할관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는 유의함을 알 수 있다. 기간 분산의 경우, 부모의 기대충족 동의수준과 전통적 성역할관 모두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분산의 크기 역시 각각 .13과 .38로 상대적으로 크다.

〈표 4〉 가족가치관 변화를 설명하는 연령-기간-세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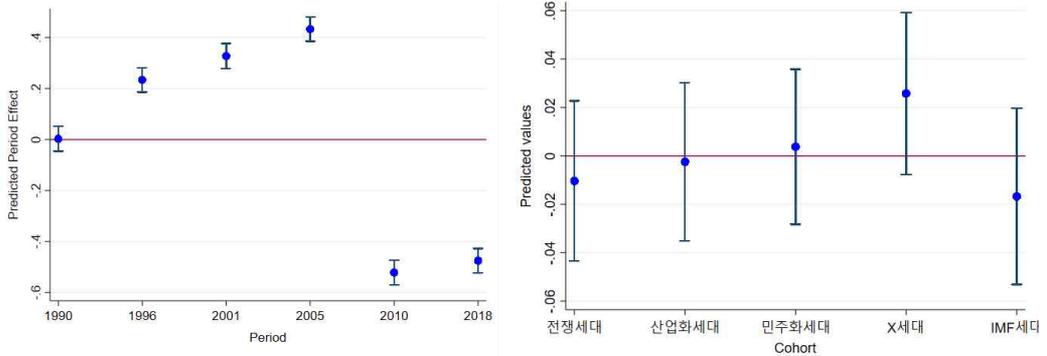
구분	부모의 기대충족		전통적 성역할관	
	Coef.	(S.E.)	Coef.	(S.E.)
연령	-.01	(.005)	-.0002	(.005)
연령제곱	.0001	(.0001)*	.00003	(.0001)
남성	.10	(.02)***	-.03	(.02)
대학졸업	.03	(.02)	.01	(.02)
결혼했음	-.05	(.03)	.07	(.03)*
주관적 소득수준	.02	(.01)**	.02	(.005)***
상수	3.00	(.12)***	2.80	(.18)***
무선효과				
_all: Identity sd(R.Cohort)	.02	(.02)	.02	(.02)
_all: Identity sd(R.Period)	.13	(.04)	.38	(.11)
sd(Residual)	.71	(.01)	.77	(.01)
N	6,009		7,213	
Wald chi-square	58.01***		40.98***	

*** p <.001; ** p <.01; * p <.05

[그림 4]와 [그림 5]는 1) 전체 모집단 절편으로부터 기간의 편차를 의미하는 u_{0j} 와 신뢰구간을 WVS 기간별로 나열한 기간효과, 2) 전체 모집단 절편으로부터 코호트의 편차를 의미하는 v_{0k} 와 신뢰구간, 3) 연령에 따른 부모의 기대충족 동의수준의 예측값과 신뢰구간을 각각 보여준다. 신뢰구간이 0에 걸쳐 있는 경우는 다른 기간, 세대, 연령대와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모 기대충족 동의수준의 경우, 1996년에는 유의하게 이 가치관에 동의하는 정도가 낮았으나 2010과 2018년에는 유의하게 높은 기간효과를 보인다. 그러나 세대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효과는 한계적으로(marginally) 나타났는데, 부모의 기대충족 동의수준은 60대 후반에 들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전통적 성역할관의 경우, 1996, 2001, 2006년에는 이 가치관에 동의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2010, 2018년에는 유의하게 낮은 특징을 보인다. 전통적 성역할관에서도 세대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령효과 역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4] 부모의 기대충족 동의수준의 기간효과, 세대효과, 연령효과



[그림 5] 전통적 성역할관의 기간효과와 세대효과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기간, 세대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가치관조사를 분석하였다. 가족가치관을 측정하는 문항 중 기간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2018년까지 5개년도 이상 걸쳐 측정된 두 문항 - 부모의 기대충족, 전통적 성역할관 - 을 분석하였으며, 각 개인은 기간과 세대는 두 가지 집단에 동시에 소속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계적 연령-기간-코호트 교차분류임의효과 모형(HAPC-CCREM)을 적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기대충족 동의수준은 2010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다가 낮아지고 있으며, 전통적 성역할관은 2010년 급격히 낮아진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HAPC-CCREM 분석 결과, 기간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 기대충족 동의수준의 경우 다른 기간에 비해 1996년에 유의하게 낮고 2010년, 2018년에 유의하게 높았으며, 전통적 성역할관은 1996년, 2001년, 2005년이 유의하게 높은 반면에 2010년, 2018년은 유의하게 낮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연령, 기간, 세대효과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있으며, 그 효과가 무엇 때문에 비롯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명확히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996년에 유의하게 낮고 2010년 이후 유의하게 높은 부모 기대충족 동의수준의 기간 효과는 1990년대 중반과 2010년대 이후라는 기간의 특성을 통해 부분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부모의 기대충족을 보여주는 '내 인생의 목표 중 하나는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는 1996년부터 측정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수준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독재시대의 종식,

경제 호황, 세계화, 신자유주의라는 변화, 1980년대의 이념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난 자유로운 사고와 X세대의 등장이라는 문화적 현상을 보이는 1990년대의 특징을 통해 1996년도에 측정된 이 문항에 대한 동의수준이 낮은 시대적 영향력을 추론할 수 있다. 2010년도 이후에는 이전 시기에 비해 부모의 기대충족 동의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졌는데, 이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경향성을 역행하는 것이다. 2010년을 전후하여 등장한 ‘엄친아’라는 신조어는 부모 기대충족 동의 수준의 상승 현상을 설명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엄친아’는 ‘엄마친구아들’의 줄임말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완벽한 남자를 말하며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을 의미한다. 엄친아 용어의 등장은 1960년대 이후 작동하던 교육과 부동산이라는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2000년대 이후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무한경쟁해야 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며(신윤동욱, 2010/05/13) 2010년 이후 ‘인생의 목표 중 하나는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다’에 대한 동의 수준이 높아진 것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부모의 기대충족에 동의한다는 것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 중 하나로 삼는 사회에서 성장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난다. 유엔의 ‘2018 세계행복지수(World Happiness Index 2018)’에서 한국은 평균소득 및 건강에서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삶의 선택의 자유’에서 155개국 중 139위를 차지하였으며 58%의 한국인만이 삶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는 행복지수가 높은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의 응답자 95%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부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가치관이 연령이 높은 집단이나 특정 세대에게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2010년 이후를 살아오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세계행복지수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가족이라는 사회제도가 개인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데 상당 부분 작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전반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데 따른 위험을 감수하기에 충분한 사회적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 성역할관은 1996년, 2001년, 2005년에는 높은 반면에 2010년, 2018년은 낮은 기간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기간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상반되는 패턴을 보인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경제위기와 관련성을 보이는데, 1980년대에 40%에 미치지 않던 참여율은 1997년 50%까지 상승하게 되지만 1997년 IMF 이후 급락하게 된다. 2004년 이후 50%를 회복하여 유지되던 참여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다시 50% 아래로 떨어졌다가 2009년 이후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여 2019년 현재 54% 수준을 보이고 있다(e-나라지표, n.d.).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을 때에는 전통적 성역할관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을 때에는 전통적 성역할관이 낮은 수준을 보이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WVS는 가족가치관의 측정 기간이 길다는 장점은 있으나 4-5년 간격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며 최근 조사는 8년 만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WVS 자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이용해 거시적 경제 환경이 전통적 성역할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2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

회조사' 등과 같은 자료를 통해 전통적 성역할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경제 환경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IMF나 금융위기와 같은 거시적 경제 환경뿐만 아니라 GDP 내 서비스업 비중, 정부의 미취학아동 교육비 지원과 같은 제도적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데(한국은행, 2018.3.15.), 2006년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차등보육 및 교육비가 지원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변화에 해당될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전통적 성역할관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보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전통적 성역할관의 변화를 유인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현상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해 볼 때, 추후에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과 같은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및 가족관련 정책과 제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의 기대충족 동의수준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아지며, 전통적 성역할관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HAPC-CCREM 분석 결과, 부모의 기대충족 동의수준에서는 연령 효과가 한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전통적 성역할관의 연령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횡단자료를 통해 세대효과를 측정된 기존연구(예: 이수연 외, 2017)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이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을 주는 것으로 여기고 결혼제도를 옹호하며 부모되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녀에게 많이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연령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반면에, 이정윤과 김주현(2020)의 연구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성역할태도가 진보적으로 변화하는 연령효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달리 반복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였고 개인이 기간과 세대라는 두 가지 집단에 동시에 소속되는 위계적 자료의 특성을 고려하였는데 이러한 분석방법의 차이로 인해 결과의 차이가 발생했을 수 있다. 연령효과로 설명된 변량에서 기간효과와 세대효과로 인한 변량을 제거하였을 때 순수하게 연령효과로 설명되는 변량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전통적 성역할관과 달리 부모 기대충족 동의수준의 경우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으나 집단주의적 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부모 기대충족 동의수준의 경우 한계적으로만 연령효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부모에게 엄친아가 되어야 한다는 부모의 기대충족 동의수준은 학업 뿐 아니라 직업, 결혼 등 성인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모의 기대수준에 부응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한성열, 2008) 이는 부모의 기대충족이 모든 연령대에 유사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로 인해 비록 60대 후반부터는 부모의 기대충족 수준이 모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전 연령대에 걸쳐 모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결과를 보였을 수 있다.

셋째, 두 가치관 모두 세대별로 보이는 변화의 양상은 일관된 패턴을 보이지 않으며, 이는 HAPC-CCREM 분석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가치관을 분석한 국내연구는 1970년대 이후 출생한 코호트는 다른 세대에 비해 노부모 경제부양에 대한 동의수준이 높지만(은석 외, 2018) 남성의 일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이정희, 2014) 등의 상반적인 모습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가 측정하고 있는 가치관과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의

구조가 기존 연구와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기존 연구결과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세대효과로 밝혀진 영향력에서 연령과 기간 효과를 제거하였을 때 실제 세대효과의 영향력은 미비하거나 유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허석재(2014)는 20세 전후의 '민감한 시기'를 기점으로 세대가 구분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세대별로 민감한 시기의 주요 기억을 공유하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소수만이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학습과 기억형성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특히 사회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높은 한국사회에서 민감한 시기의 기억이 전 생애에 걸쳐 영향력을 갖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가족가치관 중 부모의 기대충족 동의수준과 전통적 성역할관의 변화에서 나타난 연령, 기간, 세대효과를 살펴보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반복횟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세대효과로부터 연령과 기간효과를 분리하여 타당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와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10년을 단위로 세대를 구분하였으나 연구자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하되 본 연구와는 다르게 시작점을 정하기도 하고(예: 오대혁 외(2011)의 1955-1964년) 결정적 집단 경험을 이용하여 역사적 사건별로 세대를 구분하기도 하였다(예: 은석 외(2018)의 유신 세대). 이로 인해 기존 연구에서는 유의하게 밝혀진 세대효과가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한 가치관의 변화를 설명하는 세대효과를 살펴볼 때 세대구분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세대구분별 세대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가족가치관의 변화는 연령, 기간, 세대에 따른 변화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성별은 통제변인으로만 다루어졌다.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동의정도가 특정 세대의 여성에게서 더 강력하게 발견되었다는 Lee(2019)의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다룬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미영·권종욱. 2018. "World Value Surveys를 활용한 Hofstede 문화차원 측정과 활용에 관한 연구." 『아태비즈니스연구』. 9(2). 137-152.
- 김영미·류연규. 2013. "젠더레짐에 따른 성역할태도 결정요인 차이에 관한 연구: 스웨덴, 독일, 한국 비교." 『가족과 문화』. 25(2). 90-128.
- 김영순·노정호. 2017. "복지태도에 있어서의 세대효과." 『한국정당학회보』16(3). 109-142.
- 노환희·송정민·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세대 효과." 『한국정당학회보』. 12(1). 113-140.
- 류연규, Ha, Y. 2017. "일가족양립정책과 성역할태도가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과학연구』. 33(1). 71-106.

- 박경숙·서이중·김수중. 2013. 『세대 갈등의 소용돌이: 가족, 경제, 문화, 정치적 메커니즘』. 서울: 태산출판사.
- 박재홍. 2017. 『세대 차이와 갈등: 이론과 현실』. 경상대학교 출판부.
- 송다영. 2005. “가족가치 논쟁과 여성의 사회권에 관한 고찰.” 『사회복지정책』. 22. 231-254.
- 성규탁. 1994. “현대 한국인이 인식하는 효: 척도와 차원.” 『한국노년학』. 14(1). 50-68.
- 신광영·문수연. 2014. “계층, 젠더와 대학생 사교육.” 『산업노동연구』. 20(1). 31-64.
- 신용하·장경섭. 1996.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 문화』. 지식산업사.
- 어수영. 2006. 『세대와 투표양태. 어수영 편.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 원선거』.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오대혁·김학조·권종욱. 2011. “한국과 중국중업원의 세대 간 직무가치관 분석.” 『국제통상연구』. 16(1). 103-128.
- 유계숙·강민지·윤지은. 2018. “청년층의 가족개념과 가치관 :2001년과 2017년 20대 미혼 청년세대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30(3). 42-69.
- 원숙연·김예슬. 2017. “성역할 인식의 영향요인과 정책적 함의: 모성 및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7(2). 269-311.
- 은기수. 2006. “가족가치관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성별 및 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8(3). 1-31.
- 은석·안승재·함선유·홍백의. 2018. “세대 차이인가, 계층 차이인가?: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관 차이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8(1). 41-74.
- 이수연·김인순·김현정·김민정. 2017. 『양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망을 위한 세대별 가치관 연구』. 서울: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정희. 2014. “일·가족 양립 문제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고찰.” 『여성연구』. 86(1), 281-324.
- 이정운·김주현. 2020. “한국 기혼 여성의 세대별 성역할 태도 차이에 대한 호코트 효과와 연령 효과: 여성가족패널(KLoWF) 자료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104(1). 29-62.
- 정기선·김혜영. 2013. “가족관계만족도를 통해서 본 한국가족의 변화.” 『한국인구학』. 36(1). 175-202.
- 최유정·최셋별·이명진. 2011. “세대별 비교를 통해 본 가족 관련 정체성의 변화와 그 함의.” 『가족과 문화』. 23(2). 1-40.
- 한성열. 2008. “한국문화의 맥락에서 본 교육의식: 한국사회에서 교육적 성취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33-46.
- 허석재. 2014. “정치적 세대와 집합기억.” 『정신문화연구』. 37(1). 257-290.
- 허석재. 2015. “역사인식의 세대차와 시대차.” 『민주주의와 인권』. 15(1). 5-38.
- 허석재. 2017. “세대와 생애주기에 따른 이념 변화: 세계가치관조사 한국자료분석 (1990-2010).” 『한국정치학회보』. 51(1). 181-205.
- Alwin, D. F., & McCammon, R. J. (2003). “Generation, cohorts, and social changes.” In J.

- Y. Mortimer, & M. J. Shanahan (Eds.), *Handbook of life course*. 23-49. New York: Springer.
- Cennamo, L., & Gardner, D. 2008. "Generational differences in work values, outcomes and person-organization values fit."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3(8). 891-906.
- Cogin, J. 2012. "Are generational differences in work values fact or fiction? Multi-country evidence and implica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23(1), 268-294.
- Gallois, C., Giles, H., Ota, H., Pierson, H. D., Ng, S. H., Lim, T. S., et al. 1996. "Intergenerational communication across the Pacific rim: The impact of filial piety."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ross-Cultural Psychology. Montreal. Canada.
- Helliwell, J., Layard, R., & Sachs, J. 2018. "World happiness report 2018."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s Network.
- Hofstede, G. 2001. "Culture's consequences: Comparing values, behaviors,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across na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Inglehart, R., & Welzel, C.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ckman, M. R., & Muha, M. 1984. "Education and intergroup attitudes: Moral enlightenment, superficial democratic commitment, or ideological refin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9. 751-769.
- Jurkiewicz, C. L., & Brown, R. G. 1998. "Generational comparisons of public employee motivation." *Review of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18(4). 18-37.
- Kim, S. Y. 2010. "Do Asian values exist?"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0. 315-344.
- Lee, Y. 2019. "Cohort differences in changing attitudes toward marriage in South Korea, 1998-2014: An age-period-cohort-detrended model." *Asian Population Studies*. 15(3). 266-281.
- Manheim, K. 1952. "The sociological problem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163-195. London: RKP (first published 1923).
- Nisbet, M. C., & Nisbet, E. C. 2019. "Analyzing the World Values Survey." Research Paper: The public face of science across the world. Cambridge, MA: American Academy of Arts & Science. Retrieved from <https://www.amacad.org/publication/science-across-the-world>
- Phelan, J., Link, B. G., Stueve, A., & Moore, R. T. 1995. "Education, social liberalism, and economic conservatism: Attitudes toward homeless peop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1). 126-140.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2nd.)." London: Sage.
- Schuman, H., & Scott, J. 1989. "Generations and collective memo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3). 359-381.
- Welzel, C. 2013. "Freedom rising: Human empowerment and the quest for emancipation."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Yang, Y., & Land, K. C. 2013. "Age-period-cohort analysis: New models, methods, and empirical applications." New York: CRC Press.
- 세계가치관조사(n.d.).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jsp>
- 신윤동욱 (2010). "경쟁, 이 악다구니의 끝은 어디인가." 『한겨레21』(5월 13일)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7317.html
- 한국은행 (2018).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 배경 및 시사점." 국제경제리뷰제 『국제경제리뷰』(3월 15일). 2018-5호.
- e-나라지표 (n.d.).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572

<Abstract>

Age-Period-Cohort Effects of Family Values
- Focusing on Meeting Parents' Expectations and Traditional Gender Roles -

Jung, Sun You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age-period-cohort effects on the changes in the family value using the Korean data from World Values Survey. Among items measuring family values, it selected two items collected over 5 waves: Meeting Parent's Expectations[MPE] and Traditional Gender Roles[TGR]. Considering that individuals belong to both 'period' and 'cohort' groups at the same time, it adopted Hierarchical Age-Period-Cohort Cross-Classified Random Effect Model [HAPC-CCREM].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s of MPE got lower after the highest peak in 2010; those of TGR got higher after the sharp decrease in 2010. The findings from the HAPC-CCREM show that the period eff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levels of MPE were lower in 1996 compared to other waves. In the case of the levels of TGR, they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1996, 2001, 2005, but lower in 2018. Second, the levels of MPE and TGR got greater with the age. However, the HAPC-CCREM finding shows that the age effec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MPE. Third, no cohort pattern was found in the levels of MPE and TGR; it was also supported in the HAPC-CCREM finding. Based on the results, the directions in the future research on family values were suggested.

Key words: family values, World values survey, age-period-cohort effects, Hierarchical Age-Period-Cohort Cross-Classified Random Effect Model

논문 투고일: 2020년 12월 29일

심사 완료일: 2021년 02월 02일

게재 확정일: 2021년 02월 10일

저/자/소/개 정선영

미국 미시건 대학교 석사, 버클리대학교 박사 졸업.
현재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아동복지를 강의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아동학대, 빈곤아동, 아동웰빙과 가치관임.